리비아 반군 주요도시 탈환… 전세 역전

연합군 공습 지원 큰 힘…수세몰린 카다피 "반군과 협상 용의"

리비아 반군이 다국적군의 공습 지원에 힘입어 26일(현지시각) 아즈다비야 등 동부 주요 도시를 탈환하고 카다피 군이 서쪽으로 후퇴하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즈다비야 탈환…브레가 탈환 주장도 = 반군 대변인 샴시딘 압둘몰라흐는 이날 반군 거점 도시인 벵가지에서 기자들에게 아즈다비야는 "100% 우리군 수중에 들어왔다"며 "카다피 군은 더 이상 공군력과 중화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세에 몰린 것은 카다피 군"이라고 말했다.

반군이 아즈다비야에서 서쪽으로 80㎞ 떨어진 석유도시 브레가를 탈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군 대변인 압둘몰라흐는 로이터에 "브레가가 100% 해방군 수중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아즈다비야 탈환은 카디피 군에 대한 다국적군의 공습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 25일 다국적군이 아즈다비야의 동쪽 및 서쪽 관문에 공습을 가하면서 카다피 부대는 서둘러 후퇴했다. 반군 전사 사이프 사다위(20)는 연합군의 공습에 힘입어 아즈다비야 동부 관문이 지난 25일 오후 함락됐고 서부 관문은 다음날 새벽 함락됐다며 "아즈다비야 전역이 해방됐다"고 외쳤다.

카다피 측도 다국적군의 공습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하면서 다국적군이 리비아를 내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비아 서부에서 반군 거점 도시 벵가지와 석유도시 토브루크로 가는 관문인 아즈다비야를 탈환하면서 반군은 다시 동부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게 됐다.

사기가 높아진 반군은 서부로의 진격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스라타에서도 카다피군 공격 주춤 = 서방 다국적군이 이날 반군의 서부 거점도시인 미스라타에서도 공습을 강화하면서 이 지역을 포위했던 카다피 부대의 공격도 잠잠해졌다.

반군 전사인 사둔은 로이터 통신에 카다피 친위부대가 탱크를 타고 동서로 밀고 들어와 항구를 폭격했지만 "연합군 전투기가 미스라타 상공에 나타나면서 포격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리비아의 3번째 대도시인 미스라타는 서부에서 유일하게 남은 반군의 거점도시로 몇 주 동안 카다피 부대의 공격을 받고 포위된 상태였다.

◇카다피 측 "반군과 협상 용의" =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카다피 측은 반군과 협상을 시작하고 선거를 포함한 정치 개혁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압둘-아티 알-오베이디 전 리비아 총리는 이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U) 회의에 리비아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AU 평화안보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고위급 위원회가 제시한 로드맵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백령도 연하리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제막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1주기… 백령도에 '46용사 위령탑'

"비록 육신은 죽었다 하나 그 영혼, 역사로 부활하고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자유대한의 수호신이 되리라."

천안함 순국 용사 1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엄수됐다. 27일에는 천안함 희생장병 46명의 원혼을 달래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건립됐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추모식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과 전사자 유가족, 천안함 승조원, 정당 및 각계 대표, 군인, 시민, 학생 등 4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추모영상물 상영, 헌화·분향,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추모영상물 상영 시에는 천안함 46용사와 고(故) 한주호 준위 등 47명 전사자의 영정이 대형 화면에 2명씩 나타나면서 이름이 일일이 호명됐다.

영상물 상영이 끝난 뒤 군악대의 헌화곡과 나팔수의 진혼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유족대표 47명, 정부 요인, 정당 대표, 군 주요 인사와 천안함 승조원 등은 현충탑 앞에 마련된 46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영정에 헌화·분향했다.

또 27일 천안함 피격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 건립된 위령탑 제막식에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유가족, 생존 장병, 해군 및 해병 장병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4일 시작된 위령탑 공사에는 사업비 8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세 개의 삼각뿔이 8.7m 높이로 치솟아 있는 주탑은 우리 영해와 영토, 국민을 언제나 굳건히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중앙에 있는 보조탑에는 46용사 얼굴을 담았으며 좌측에는 추모시, 우측에는 비문을 각각 새겼다. /연합뉴스

"리비아 공습 지켜본 北, 핵포기 안할 듯"

前 美국무부 한국과장 주장

2003년 핵개발을 포기한 리비아가 최근 서방의 공습을 당한 것을 본 북한이 핵보유 의지를 강화할 것이기에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망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지난 24일자 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비아 상황에서 취할 교훈들은 다른 강대국들과 진행하는 모종의 협상에 의한 해법의 가능성을 더 낮추는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또 루디거 프랑크 고려대 방문 교수는 북한이 리비아 상황에 대해 최근 20년 사이 자신들의 핵보유 결정이 옳았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세 번째 사례로 여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소련이 미국과의 핵무기 경쟁을 끝내기로 한 일, 이라크가 유엔의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한 일과 함께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결정을 서방에 대한 양보가 파국을 초래한 일로 간주할 것이라는 얘기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 지도부의 눈에는 세 나라가 경제적인 미끼를 물었다가 어리석게도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직후 서방의 무자비한 징벌을 당한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NYT는 또 최근 북측이 서방의 리비아 공격에 대해 '안전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김정일, 돌팔매 당하는 꿈 꾼다"

정몽준, 故정주영 방북 당시 '비화' 공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에게 "북한 주민으로부터 돌팔매 당하는 꿈을 꾼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정 명예회장의 6남인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녹화방송된 MBC '일요인터뷰'에서 정 명예회장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김 위원장과 만나 나눈 '비화'를 공개했다.

정 전 대표는 "아버지께서 북한을 다니면서 김 위원장을 만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는데, 한번은 김 위원장이 '어디 가면 주민들이 많이 나와 환영하지만, 실제로는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 명예회장에게 "잠을 자면 돌팔매 당하는 꿈을 꾼다"며 "첫번째가 미국 사람, 두번째가 남한, 세번째가 북한 주민이 돌을 던지는 꿈을 꾼다"고 말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미얀마 6.8강진 최소 75명 사망

교민피해 없어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지대에 인접한 미얀마의 산악지역에서 24일 오후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75명이 숨지고 110여명이 부상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태국 북부의 치앙라이에서 90㎞ 가량 떨어진 미얀마 동북부 산악지대의 지하 10㎞ 지점에서 24일 오후 8시25분(현지 시각)께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USGS는 지진 규모를 당초 7.0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6.8로 수정했다. 진앙지가 산악지대여서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 정부 관계자는 "진앙지와 가까운 국경지대의 따레이 마을 등에서 74명이 숨지고 110여명이 부상했다"며 "지진으로 주택 244채와 사원 14곳, 정부 기관 건물 9곳 등이 붕괴되거나 손상됐고 진앙지 인근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유실됐다"고 밝혔다.

미얀마에는 1000여명의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부분 진앙지에서 590여㎞ 떨어져 있는 미얀마 옛 수도 양곤 지역에 살고 있어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 /연합뉴스

日원전 2호기 물웅덩이 방사능 정상치 1천만배

IAEA "위기 끝나려면 멀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 터빈실에 고여 있던 물웅덩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정상 운전 시 원자로 냉각수의 1000만배 농도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2호기 물웅덩이에 포함된 '방사성 요오드 134'의 농도는 1㎤당 29억㏃(베크렐)이었다. 정상 운전 시 원자로 물에 포함된 방사성 요오드 134의 농도(수백 ㏃)의 1000만 배에 이르는 셈이다. 1, 3호기에서 발견된 물웅덩이의 방사성 물질 농도보다 1000배나 높았다.

방사성 요오드 131은 1㎤당 1천300만㏃, 세슘 134와 세슘 137도 각각 230만㏃ 검출됐다.

도쿄전력은 2호기 물웅덩이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반감기(8일)가 짧은 방사성 요오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물이 사용 후 연료 저장 수조가 아니라 원자로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수구 부근 바다의 요오드 오염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27일 후쿠시마 원전 배수구 부근에서 26일 채취한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법령으로 정한 한도를 약 1850배 초과한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일본 정부는 옥내 대피를 지시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반경 20~30㎞ 구역의 주민에 대해서도 사실상 피난을 권고했다.

또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26일(현지시각) 말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원전 위기가 수주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는 원자로 건물 꼭대기에 있는 냉각 수조 안의 사용 후 핵연료봉이라며 연료봉에 불이 붙어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조 안으로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성공적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